

이슬람국가(IS)와 성전(지하드) 가운데 들려올 소식 ‘평화’

현한나*

논문초록

20세기 중동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부터 자행되었던 이라크 전쟁 등에 의해 이슬람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무장단체 세력 중의 하나가 IS(이슬람국가)이다. 이들은 2003년부터 자마아트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라는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유일신(알타우히드)과 지하드(성전론)사상을 바탕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준국가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칼리프 시대를 세우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IS(이슬람국가)는 이라크의 4%미만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도, 야지드인들과 같은 소수 민족들을 인질로 잡고, 탄압하며, 학살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보인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사 9:6)으로 묘사하며, 메시아의 왕국을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사회(사 2:4; 7:25)로 그리고 있다. 이 시대의 이슬람 근본주의 풍조는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지하드 곧 성전론적 사고 구조가 팽배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평화였던 것처럼(엡 2:14-22)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용서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 받은 용서와 은혜의 회복이 이라크의 기독교인 난민들 가운데 절실한 때이다. 핍박받고 있는 이라크 교회들을 향하여 한국교회와 많은 세계의 교회들은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처럼 중동 땅과 세계 교회 가운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 교회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제어: IS(이슬람국가), IS, 지하드, 유일신, 알타우히드

*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2014년 10월 25일 접수, 12월 8일 최종수정, 2014년 12월 24일 게재확정

I. 들어가는 말

2001년 9.11 사건의 배후인 알카에다(al-Qaeda)와 탈레반 세력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모든 무슬림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로 보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한국도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씨가 피살되면서 이슬람 세력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보다는 이슬람포비아가 확산되었고 2014년에는 IS(이슬람국가)에 의해서 8월 말과 9월초에 미국의 두 기자들이 참수당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IS(이슬람국가)가 잘 조직된 연합세력을 중심으로 지하드를 해나가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세력들이 200차례가 넘게 공중으로 공습작전을 펴왔다. 이슬람 순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세력 IS(이슬람국가)는 실제로 2004년 김선일씨를 피랍하여 참수했던 자마아트 알 타우히드 왈지하드(Jama'at al-Tawhid wal-Jihad) ‘일신교와 성전’ 이란 단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에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이 밝혀지자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IS(이슬람국가)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심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중동지역에 흩어져있는 재외국민들에게도 많은 염려와 함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IS(이슬람국가)라는 조직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하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무슬림들에 대해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가? 필자는 IS(이슬람국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IS(이슬람국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단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의 방향으로 시선을 전환하려고 한다. 지금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향하여 29: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인질로 잡혀있는 야지드족 사람들과 400만이 넘는 이라크국내의 난민들이 나라를 떠나 온통 주변국으로 떠나간 시점에서 단지 마음에 평정을 찾기 위해 거짓 평안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기초하여 평화의 왕 되시며 모

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모든 원수의 권세를 밟으며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에 대한 확신에서 오시는 진정한 평안이었다. 성경에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사 9:6)으로 묘사하며, 메시아의 왕국을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사회(사 2:4; 7:25)로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평화에 대해 설교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과 같이 핍박받고 있는 이라크 교회들을 향하여 한국교회와 많은 세계의 교회들은 중보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것은 무력과 악에 대항하여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복수심에서 비롯된 보복의 순환고리를 포기하는 자세이며, 중동지역에 적극적인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태도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아래 잘못 행했던 외교적 정책들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이슬람이 가진 성전주의적(지하드의)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 안에는 없었는가 재평가해보는 성숙된 자세로 세계의 교회들에 대한 윤리적 회복을 요청하는 파수꾼으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 논문에서 IS(이슬람국가)가 시작된 땅 이라크는 어떤 땅이며,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IS(이슬람국가)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탄생 배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정치적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개입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야지드족들과 시아파와 그 외 소수 종파들에 대한 사건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는 가운데, 그들이 타도의 대상 제 1호로 두고 있는 미국의 실패한 외교정책들에 대해서 되짚어가면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중동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들을 극복해 가야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IS(이슬람국가)라는 단체가 내건 유일신(알 타우히드)와 지하드(성전)의식이 무슬림들의 세계관의 뿌리가 된 연유에 대해서 사이드 꾸툼의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과 20세기 일어난 이슬람 부흥운동의 흐름을 되짚어보면서 이슬람이란 종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길 능력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중동 땅에 전해 주실 평화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1) 예수는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눅 10장에서는 마을에 보낸 칠십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사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다.

세대가운데 가져야 할 시각에 대해 논하겠다.

II. 이라크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민족과 기독교

이라크는 찬란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숨쉬는 나라이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섞여 있어 아주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라크에는 아랍계, 투르코멘, 쿠르드족, 앗시리안 간의 인종갈등 뿐 아니라 이슬람 내에서 순니파와 시아파, 기독교 내에서는 정교회와 가톨릭, 복음주의로 불리는 개신교 간의 대립이 있다. 그중에 갈대아 교회와 앗시리아 정교회, 개신교등으로 기독교인구들은 총 인구의 4%정도이며, 소수 종교로는 IS(이슬람국가)가 점령한 모술을 중심으로 야지드교, 사비이아교 등도 있다. 이라크 땅에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강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창 2:8-14)가 있으며 이 지역은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킨 북부 앗수르 제국이 있었던 곳으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야했던 니느웨가 있던 지역이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기원전 605년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살았다. 느부갓네살왕은 갈대아인으로서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은 앗수르가 차지하던 영토를 확장하여 니느웨를 정복하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들어가서 612년 남유다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을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재건하기 위해 애썼으며, 기원전 539년에는 바벨론이 고레스 대왕에게 망하면서 이란 제국에 편입되었다.

원래 이라크 지역에는 이란인들이라 불리는 페르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632년 아랍인들은 칼리프제도를 통해서 페르시아 지역까지 뻗쳐나가면서 이슬람이 이라크를 정복할 때, 대부분의 주민들이었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통치자에게 ‘지즈야’라는 인두세를 내야했다.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던 4세기동안에 이라크는 주요 지역이 크게 세 곳으로 나뉘었는데 바그다드와 모술, 바스라 지역이었다. 이라크 모술 지역에는 야지디인²⁾들이 살았고, 산기슭에는 쿠르드인들이 살았으며, 바그다드를 중심

2) 야지디인들은 주로 이라크에 많이 주둔하며 그 외에도 시리아, 터키, 러시아 등지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성지와 예배당을 근처로 마을을 이루어왔다. 자신들이 따르는 샤이크 아디(Shaikh Adi), 무

으로 순니 무슬림 아랍인들과 순니 쿠르드인들이 살았으며, 바스라 지역에는 기독교인들과 많은 유대 공동체들이 살았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네스토리야 기독교인들로서 고대 앗시리아의 니느웨 지역의 후예로 여긴 이라크인들이다. 그래서 이라크는 아르빌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 쿠르드문화와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순니 이슬람 아랍문화, 바스라를 중심으로 시아파 이슬람 아랍문화와 북부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 민족 앗시리아인들의 문화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끼고 중류 지역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 유목민 아랍인들의 문화가 자리잡았다(공일주, 2006: 29).

이라크는 전체 인구의 60%를 남부 지역에 사는 시아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15%를 북부지역 쿠르드족이 차지하고 있고, 중부와 북부 순니파가 20%를 차지하면서 소수민족인 투르코멘, 아시리아인들이 4%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앗슈르라 불리는 앗시리아인들의 교회는 에베소 공의회(431)을 거치지 않고 정교회에서 떨어져나간 네스토리우스파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네스토리우스파에 속한 동방교회와 안디옥 학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시리아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와 통합한(1830) 칼데아 교회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두 강 사이를 끼고 고대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해 온 아랍인들의 후손들이 거주한다. 이라크 전체 인구 2700만 중에서 IS(이슬람국가)가 일어나기 이전 기독교인들은 4%이며, 현재 피난 간 난민 중에는 40%가 기독교인들이다.³⁾

이라크는 미국이 2003년 침공한 이후 과도통치위원회가 세워졌으며 2005년에 헌법을 통해 총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까지 과도기를 겪었다. 그 이후 시아파 성직자들은 이라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부상하였으며, 이란의 호메이니가 건설한 것과 같은 신정국가 건설, 정교일치 국가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사담 후세인 정권 때에 순니파에 밀려 꺾박받고 정치에 못 나섰던 시아파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순니파는 자신들의 기독교권을 상실하였다. 결과적으로 말리키

사피르(Musafir)의 아들,의 무덤이 있는 모술의 북동쪽에 있는 셰칸(shekhan)이란 지역의 라리쉬(Lalish)라는 계곡 근처와 모술에서 80km 서쪽으로 떨어진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인 신자르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 이들이 믿는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의 혼합된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일신론자들에게도 부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 체계들과 경전들이 서구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Sam Ahmed 1973, 38-42).

3) <http://www.church.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 (검색일 2014. 10. 9) “이라크 교회의 역사와 현실-교갱뉴스”

정부의 시아파 위주 국정운영은 순니파 지휘관들과 수뇌부를 반란으로 결집시켰고, 서구의 후원가운데 진정한 민주 정부를 이끌겠다던 맹세와 달리 억압적인 형태의 정치를 해온 점들도 IS(이슬람국가)등장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Loretta, 2015: 146-147). 이러한 가운데 사담 후세인 정권 때 하층민으로 전락했던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새 정부를 주도하면서 순니파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순니파 무장세력들은 내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라크 북부 지역인 모술, 키르쿠크 지역은 유전지대로 늘 내전의 위험 가운데 있었다(장병옥, 2008: 315). 예상대로 오늘날의 IS(이슬람국가)도 이라크 전쟁과 후세인 정권이 타도된 것에 대한 보복심에 의해 조직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III. IS(이슬람국가)의 기원과 탄생

IS(이슬람국가)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IS(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준국가 형태의 무장단체이다. ISIS라 알려진 IS(이슬람국가)는 ISIS(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IS(이슬람국가)) 혹은 ISIL(이라크와 레반트 지역 IS(이슬람국가))로 알려지다가 지금은 IS(이슬람국가)로 호칭된다. IS(이슬람국가)는 2014년 올해 6월 10일 1주일 만에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약 60km떨어진 바쿠바까지 진격하여 순니파들의 지원 하에 이라크 영토를 급속히 장악한 뒤에, 6월 29일에는 최고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칼리프로 하는 IS(이슬람국가)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전세계에 시리아의 알레포에서부터 이란과 이라크 지역까지 걸치는 광대한 지역에 IS(이슬람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2014년 수면위로 드러난 IS(이슬람국가)의 시작은 실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김선일씨를 살해했던 자마트 알타우히드 왈지하드(Jama'at-al-tawhid wal-jihad) 즉 '일신교와 성전'이란 단체가 IS(이슬람국가)의 기원이 된다.

실제로 이 단체는 2003년 순니파에 속하는 아랍 반군 세력들로 여겨졌는데 알카에다와 무자헤딘과 연계성이 깊다. 처음에는 단순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터키 지역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지역을 확대하여 이슬람이란 종교 아래 국가들을 통합하고 궁극적으로는 칼리프 제도를 부활시켜 21세기

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순니들의 이슬람의 제국, 제 2의 압바시드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범국가적 중동지역의 조직적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신교와 성전’이란 단체의 시작은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라는 지도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2004년 10월 17일 알카에다에 충성을 서약하고, 2014년 알카에다와 결별하기까지 근 10년 동안 이라크 지역 알카에다의 전담역할을 맡아왔고, 김선일 씨 외에 많은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아 공개적으로 협박 후 살해하기도 했다고 알려진다.

아부 무삽 알 자르카위(abu-musab al-Zarqawi)는 요르단 출신으로 1966년 10월 요르단 자르카 지역 광산촌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러한 연유로 그의 이름이 알자르카위가 되었다. 그는 ‘일신교와 성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포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선봉이 되며, IS(이슬람국가)를 통해 약속된 승리와 미래의 희망을 무슬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배교자들의 당들과 무신론자들을 좌절시킬 것이며, 알라의 명령에 따라 승리를 확신한다. 우리는 준비된 군인이며 알라를 위해 충성을 맹세한 이들이다. 오직 유일한 알라를 선언하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줄 것이다. 우리들은 한 형제들로서 지하드를 함께 지지하며, 선을 위하여 알라가 그 백성과 이슬람을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River, 2014: 23).”

자르카위는 바그다드로 2002년부터 머무는 동안 2004년 10월 17일 본격적으로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와 연맹을 맺으면서 이라크 지역의 알카에다로 알려졌다가 지금은 IS(이슬람국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06년 알 자르카위가 사망한 이후, 알 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로 알려진 본명은 이브라힘 알 바드리(Ibrahim Awwad Ibrahim Ali al-Badri)라는 지금의 지도자가 2010년 5월 16일 IS(이슬람국가)를 리드하게 되었다(Sekulow, 2014: 4-10).

알 바드리는 빈 라덴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학자출신으로 세이크(종교지도자)란 말대신 선생(doctor)이란 호칭으로 자주 불린다. 바그다드 이슬람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이슬람학과 역사, 아랍 문학 등에 학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며, 좋은 집안 배경에서 태어난 종교적인 학자이며, 종교 지도자 ‘이맘’이기도 하다. 그가 태어난 지역 사마라(Samarra)⁴⁾는 압바시드 칼리프 왕조 때에 수도로 여겨졌

4) 사마라는 보는 사람이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며,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24km 떨어져 9세기 압바스

으며 순니파가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는 도시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당시 팔루자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5년 미군부에 의해 잡혀 감옥에 들어갔다가 2009년 25,000명의 수감자와 함께 사면되었다. 그는 기회주의자이며 전략가로 알려지는데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되자 조직의 이름을 ISIL로 바꾸고 시리아에 본거지를 두고 시리아와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테러활동을 펼쳤으며, 교통로와 원유 송전로를 차지하여 알카에다의 리더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Ayman al-Zawahiri)의 전술 등을 넘어섰다고 평가된다. 알 바드리는 싸움의 전장에서 나와 지하디스트들과 함께 직접 싸움을 치루고 있어서 많은 지하디스트들이 바드리를 따라 IS(이슬람국가)에 자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난 이후 IS(이슬람국가)라는 이 조직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으며, 아랍의 봄 이후 2011년 시리아 전에서 모습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그는 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고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천만한 인물이란 수식아래, 새로운 빈 라덴으로 지목되고 있다(River, 2014: 50).

IS(이슬람국가)는 2014년 8월 19일 미국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40)를 시작으로, 9월 2일 미국 프리랜서 기자 스티븐 소틀로프(31), 9월 13일 영국 구호 활동가 데이비드 헤인스(David Cawthorne Haines)(44), 10월 3일 영국 구호 활동가 앨런 헨닝(Alan Henning)(47), 11월 16일 미국인 구호 활동가 피터 케이시그(Peter Kassig)(26) 등을 참수하였으며, 올해 2015년 1월 24일에는 일본 민간 군사 회사 대표 유카와 하루나(湯川遙菜)(42), 2월 1일 일본 프리랜서 기자 고토 겐지(後藤健二)(47)를 참수하였고, 2월 3일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Muath Safi Yousef al-Kasasbeh)(27)를 산채로 불태우는 등 전 세계에 테러에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켰다. 이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는 민간인들을 살해하여 전쟁을 선포해 가는 IS(이슬람국가)에 대한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다.⁵⁾ 그러나 반대로 IS(이슬람국가)의 참혹한 영상들과 메시지들은 SNS를 타고 세계에 전달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은 용병으로 참여하여 IS(이슬람국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IS(이슬람국가)의 입장에서 참수현장을 유포하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은 오히려 전세계에 IS(이슬람국가)의 잔인성에 대한 강

왕조 때 칼리프 알 무타심에 의해 천도되었다(권삼운, 2003: 194).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9667 2014. 9.3. “미국인 기자 참수에 대한 기사-오마이뉴스”

력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젊은 대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비인간성은 젊은이들의 잠재된 분노를 표출시키고, 더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하고 싶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2014년 초만 해도 이라크 내에 1만 명 정도로 주둔한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약 5만명 정도까지 IS(이슬람국가)의 군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지하디스트들 용병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우려를 사고 있다. 용병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IS(이슬람국가)는 원유를 팔아서 연간 3억 달러의 수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한 원유들은 터키의 암시장에서 거래되어 매일 100만~300만 달러가 되는 테러자금들을 확보해 가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IS(이슬람국가)의 지하디스트로 활동할 시에 1,200달러의 주택을 제공하고, 매월 부인에게 100달러, 자녀 1인당 50달러 지급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죽은 후에도 수천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젊은 무슬림들의 참전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인 인질들을 많이 붙잡고 있어 이들의 몸값을 테러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세력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공습을 통해 이들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유전지역을 중심으로 송유관들을 파손시키고 있다.⁶⁾

IV. 이라크와 시리아 공습 현황과 난민들

현재는 시리아의 유전 10곳 중에서 6곳을 IS(이슬람국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지역에도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이라크의 쿠르드군인 페쉬메르가⁷⁾는 9월 30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가 장악했던 시리아 접경마을인 라비아

6) IS의 시리아: IS(이슬람국가) 탄생인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인가 2014년 홍성민 칼럼과 Washington post 연합뉴스의 2014년 9월 15일자 재인용.

7) KRG라고 불리는 쿠르드족 자치 정부를 지키는 페쉬메르가(죽음과 맞서는 사람들이란 뜻)는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 때부터 형성되어 영국과 러시아등 강력한 나라들에 이용되었으나 결국 버려지고, 이란과 이라크 북부지역을 떠돌면서 홀로 싸우면서 탄압 속에서 버텨낸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담 후세인 당시에는 쿠르드족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키르쿠크 유전지대에 이라크인들을 대거 이주시켜 쿠르드족을 추방하려 했으나 쿠르드족은 이라크 정부와 15년에 가까운 투쟁을 벌였으며, 1980년대부터 88년까지 있었던 이라크-이란의 전쟁에서 이란 편에 서있었기에 후세인은 그에 대해 보복으로 화학무기를 살포하여 쿠르드족 10만여명을 학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를 탈환하였다.⁸⁾ 이들의 승리는 시리아 지역 내 쿠르드족과 이라크 내 영향력 있는 순니파 부족인 사마르족의 지원 아래 가능했다고 알려지는데, 이것이 시리아 내 공습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성과였다. 페쉬메르가는 라비아 외에 키르쿠크, 주마르 등 전투기들의 공군력들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IS(이슬람국가)를 공격하였으며, 미국은 9월 29-30일 이틀 동안만 각각 11차례 총 22차례의 공습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습으로는 IS(이슬람국가) 척결이라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는게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IS(이슬람국가)와 같은 반정부군, IS(이슬람국가)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지상군 파병을 대신할 용병들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시리아 반군세력들을 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당장 5억 달러를 집행해달라고 요구해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터키까지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순니파 정권들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들과 결합하여 IS(이슬람국가)를 격퇴해야 하는데 자국 군대를 파견해서 싸워줄 의향이 없는 같은 순니파 정권들 때문에 쉽게 IS(이슬람국가) 척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IS(이슬람국가)를 없애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권은 시리아 정부군인데 미국은 시리아 내전기간 동안 시리아 반군의 입장에 서서 시리아 정부군을 타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리아 내에 자리 잡은 IS(이슬람국가)도 쉽게 타도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공습 외에 지상군 파견 문제가 더욱 시급해지면서 IS(이슬람국가)에 대응하는 서구세력들은 이 문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고, 붙잡힌 소수민족들과 희생자들만 애타는 시점이 되었다. 중동 테러리즘 전문가인 마르코 핀파리 카이로아메리칸대학(AUC) 정치학과 교수는 순니파 무장조직 IS(이슬람국가)를 둘러싼 유혈 충돌이 최소 2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IS(이슬람국가)는 완전히 소멸이 어려울 것이고 장기적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 독립적인 소규모의 무장조직으로 계속 남아 규모가 축소되거나 지하 세계에서 조직화되거나 혹은 조직명을 바꿀 수는 있지만 칼리프 제국을 회복하려는 기본적 이념과 사상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다.⁹⁾

IS(이슬람국가)의 외부의 적은 미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아파 무슬림들과, 기독교

8) IS(이슬람국가)가 야지디족을 학살했던 신자르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 이라크의 제 2도시인 모술에서 북서쪽으로 10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9)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10/story_n_6649472.html 2015. 2.19. “연합뉴스-인터뷰 테러리즘 전문가 IS와 전쟁에 최소 2년 걸릴 것”

인들, 유대교들, 야지디족 그 외 소수 종파들이 된다. IS(이슬람국가)는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의 일부를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인종 및 종교 소수집단을 탄압, 청소하고 있는데 아시리안 기독교인들, 시아파 투르크멘족, 시아파 샤박족, 야지디족, 카카이 및 사비안 만다이즘교도 등이 박해당하고 있다. 또한 IS(이슬람국가)는 같은 무슬림들이지만 순니가 아닌 시아파를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아파 모스크와 성지를 포함하여 비순니파 무슬림들 공동체가 숭배하는 성지들을 파괴했다.

이라크 내 기독교인들은 소수로서 전체 인구의 4%미만이었었는데 IS(이슬람국가)는 2014년 6월 10일 이라크의 제 2의 수도인 모술을 점령한 후에는 한 사람당 250달러에 해당되는 인두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였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마을이라 알려진 모술에서 30km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카라코시 지역에는 인구가 전체 5만여 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종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하여 마을 전체가 혼돈 상태가 되면서 다 떠나고 북쪽의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으로 피난가면서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2014년 8월 초부터 IS(이슬람국가)는 또 한 차례 쿠르드 자치정부군 조직인 페쉬메르가를 몰아내고 티그리스강 상류의 모술댐을 장악하게 되면서 물과 전기를 확보하고 댐을 확보하게 되었다. 카라코시뿐 아니라, 탈 카이프, 바르텔라, 카람레슈 등 5개 이상의 기독교인들의 마을 등이 IS(이슬람국가)에 점령당하고 십자가를 떼어내야했다¹⁰⁾. 피해자들은 기독교인들뿐이 아니다.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에 의하면 8월 2일 대량학살의 생존자는 이라크 북부 신자르 지역에서 IS(이슬람국가)의 무장세력들이 야지디족의 수십명의 남성과 소년들을 살해했고, 트럭으로 몰아넣어 교회 지역 마을로 끌고 가서 집단 학살하거나 개별로 총살하는 등 인공청소를 벌였는데 야지디족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했고 가족 전체도 납치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보도하였다. 여인들은 모술 학교들에 갇혀서 IS(이슬람국가)의 군인들에게 노예처럼 취급을 받거나 강제로 팔리고, 강제결혼을 하게 되거나 인간방패로 잡혀있다. 2014년 8월 9일자 신문에 의하면 IS(이슬람국가)는 야지디족 300가구에 찾아가 개종이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며 협박을 가하여 북부 산악 지대에 살고 있는 4만 여명의 야지디족을 고립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라들은 갇힌 야지디족들을 돕기 위해 구호품을 공군기를 통해 여러 차례 투하시켜주고 있다.¹¹⁾

10)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808000142> (검색일 2014. 10. 6)

11)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963 (검색일 2014. 10. 7)

IS(이슬람국가)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으로 지하드를 퍼뜨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카바 까지도 위협을 주고 있다. 메카에 있는 카바 돌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돌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IS(이슬람국가)는 “알라의 뜻이라면, 우리들은 메카에 있는 돌을 숭배하는 이들을 죽이고 그 돌마저 파괴하겠다.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IS(이슬람국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아파의 묘지들이나 성지, 모스크와 종교적인 장소들을 다 파괴하는데 묘지 숭배나 다른 종교적인 유적지들을 신성시하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IS(이슬람국가)는 2014년 6월 25일 미국에 대해 위협하는 메시지들을 미디어들을 사용하여서 밝혔다. 그들은 “CALAMITY WILL BE FALL US” 즉 ‘재앙의 중심은 바로 미국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뜻의 성명서를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다(River, 2014: 530). IS(이슬람국가)는 현재 지역패권에 무력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세력에 대한 타도를 일차적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상숭배자라고 규정되는 다른 종파 사람들을 참수하거나 인질로 붙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고, 타종교에 대한 강한 성전의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할리야 시대에 대한 타도이다. 미국을 타도하는 것은 곧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국가를 타도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타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소위 생각하는 미국에 화살을 돌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을 레반트 지역에서 타도하면 지하드는 일차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할리야 시대에 대한 타도로,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사이드 꾸툼을 비롯한 이슬람 원리주의적 사고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알라의 뜻에 따라 이슬람법에 기초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 알라의 법과 꾸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시아파와 우상숭배자들,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타도되어야 한다(Gabriel, 2009: 215). IS(이슬람국가)는 일반적인 온건한 무슬림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지하드 성전을 수행할 의무를 갖고 자신들의 손에 의해 알라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을 척결해야만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자마아트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때부터 IS(이슬람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신론적 세계관과 지하드가 왜 미국이란 국가와 21세

기 자할리아 시대를 타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진술하겠다.

V. IS(이슬람국가)의 궁극적인 목표

1. 유일신과 지하드

유일성 원리를 나타내는 알타우히드(al-tawhid)의 의미는 본래 알라의 유일성을 의미한다. 이 일신론적 사상은 알라의 유일성과 함께 신적 통치의 단일성과 피조세계의 단일성이란 구조를 갖는다. 즉 모든 사회의 질서와 움직임이 유일신으로부터 기원해야 하며, 정교가 일치된 신정정치를 추구한다. 또한 신의 유일성에 관련하여 단일한 원리로서 절대자의 유일신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무슬림 생활의 전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최재훈, 2010: 151). 타우히드는 이슬람의 기초로서 자리잡게 된다. 즉 알타우히드 사상은 단지 이슬람이 믿음의 신앙적 영역일 뿐 아니라 세속적 영역에 걸쳐 통일된 생활방식으로서 단일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슬람은 종교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인간 생활의 분야를 포괄하고 지배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슬람이란 아랍어로 알라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개인의 마음의 안정과 공동체 전체로는 완전한 평화적 질서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상태는 움마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능하다(김정위, 2001: 281). 무슬림들이 말하는 움마(Ummah)라는 것은 인종, 문화, 역사, 언어를 초월한 종교적이며 강력한 정치체제의 근간이 되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교가 일치되는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기도 하다(최재훈, 2010: 149- 150).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주권자 또한 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하며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통치자는 이맘이나 칼리프와 같은 신의 대리자로서 절대적으로 신의 계시에 복종하고자 하는, 절대자로부터 위임받은 이가 다스려야 한다. 신의 의도대로 공동체인 움마를 이끌어갈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일적인 세계, 알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는 따라서 이슬람의 영토(dar-al-Islam)와 전쟁의 영토(dar-al-harb)로 양분된다. 이슬람의 영토는 무슬림들이 서로 평화롭고 자유롭

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타종교인들(불신자)도 무슬림들의 통치에 복종하고 인두세(지즈야)를 지불하면서 무슬림들이 갖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다(김정위, 2001:283-4). 반면 전쟁의 영토는 이교도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로서 무슬림들은 전자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하드를 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이교도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의식을 가진 무슬림들은 원리주의적 운동은 내부의 모순(세속화된 무슬림들)들을 극복할 뿐 아니라 외부세계 또한 변화되도록 점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세속화가 들어오면서 무슬림 공동체들은 이교도들의 세계-서구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위기 의식이 자리 잡았다. 현실의 모순구조를 타파하고 진정한 이슬람 사회,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따라서 유일신과 지하드를 외치는 IS(이슬람국가)의 목표는 단지 미국을 타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하드는 모든 무슬림들이 행해야 하는 것인가? 지하드는 개인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한 오행¹²⁾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슬람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공동체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다. 알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와 공격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무슬림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공동체가 결정한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이며, 참여하여 순교할 경우는 천국이 보장된다고 믿고, 마지막 심판에서도 면제된다. 지하드의 방법은 크게 넷으로 구분되는데 마음의 지하드와 혀나 말로 하는 지하드, 손과 도움을 통해 하는 지하드, 칼과 무력으로 행하는 지하드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하드가 존재하듯 본래 지하드라는 용어는 사회에 팽배한 부도덕과 서구적인 영향력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고 지적, 사회적 개혁을 위해 유래되었다. 소위 IS(이슬람국가)들로 불리는 많은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은 지하드라는 원리를 통해 서구 식민지라는 굴욕을 씻고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영적인 정화를 도모하기 원하였다(손주영 2005: 341). 그래서 지하드는 영적, 사회적 정화의 목적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고 크게는 둘로도 구분될 수 있는데 정신적인 형태로서 자신의 육신과 죄악, 사탄과의 투쟁을 기본적으로 하는 대지하드가 있고, 육체적인 형태로서는 우상숭배와 악, 이교도들에 대한 올바른 전쟁을 수행하는 소지하드로 나뉘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지하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다면 타자 혹은

12) 샤하다(고백), 살라트(기도), 사움(금식), 성지순례(하지), 자카트(2.5% 구제비)를 수행하는 것을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의 기본적인 5가지 기둥 혹은 오행으로 알려진다.

외부와의 전쟁선포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영적 성숙과 도덕적 정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무슬림들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과 죄악을 되짚어 타도할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과의 깊은 내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자하다(jahada)는 ‘노력하다’라는 아랍어 동사 어근에서 파생되었고(김정위, 2001: 41), 무자하다 즉 지하드를 행하는 자들이란 뜻에서 무자헤딘(무장전사들)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파생형인 이즈티하드 의미는 지적이고 과학적으로 무장한 자가 꾸란과 순나 구절들 뜻을 연구하여 새로운 부흥운동을 도모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의 의지와 투쟁이며, 자신이 가진 이기적인 야망, 욕망 등으로부터 이겨서 자유한 상태로 나아가는 세속성을 극복하는 인간의 씨름(struggle)을 의미한다(최재훈, 2007: 166; 현한나, 2013: 166-167).

그러나 오늘날 지하드는 초기 무슬림들이 이해하던 일차적인 종교적, 영적, 내면적 정화의 해석과는 무관하게 군사적인 의미와 영토 정복 전쟁으로 확대 재해석되면서 그 본래적 의미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다(Ali Bulac, 2004: 50-51).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식민지를 경험한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구로부터 들어온 이데올로기들과 세속적인 정치이념들이 알라가 원하는 법적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랍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구로부터 들어온 이데올로기들과 세속적인 정치이념들이 알라가 원하는 법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신론, 다신론 및 우상숭배에 버금가는 인종주의, 민족주의는 세속에 물들었으며 타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민족주의는 인류를 민족별로 언어별로 갈라놓아 인류의 단합을 깨뜨리는 불합리한 사상으로, 현대판 부족주의이며 사회주의는 무신론자들의 세계관으로 이슬람의 투쟁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랍의 혁명(2010)이후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이 말하는 소지하드의 개념은 중동지역에 더욱 팽배하여 내면의 적이 아닌, 외부의 적들인 서구와 싸우고, 이슬람의 원리로 돌아가고자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세속적인 부분들을 배격하고 이슬람 정신을 부흥시켜 세상을 개혁하고자 지하드를 정당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IS(이슬람국가)가 주장하는 초기 이슬람으로의 회귀, 칼리프 시대를 통한 이슬람 부흥운동과 영토 확장에 대한 주장 또한 폭력을 통한 지하드의 성취를 본래적 의미의 대지하드 형태를 왜곡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단락에서 볼 사이드 꾸툼의 자할리야 시대에 대한 해석 또한 본래적 차원의 지하드, 영적 성숙과 도덕적 정화와는

거리가 멀어진 왜곡된 전쟁 형태의 지하드의 발전과 연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지하드를 통한 자할리야 사회 타도와 칼리프국가 건설

그렇다면 지하드를 통해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되는 자할리야는 무엇이고, 그러한 사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앞서 본 바대로 지하드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변질된 근본주의적 해석은 자할리야 사회라는 사이드 꾸툼의 사상 아래 잘 드러난다. 자할리야 사회는 믿음과 사고, 경배와 수행, 법적 규율에 있어서 유일신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는 다른 사회로서 혼란과 무질서, 전복해야 할 사회를 의미한다. 자할리야 사회는 알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인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며, 우상숭배 사회로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정교한 숭배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이며,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회¹³⁾이기도 하다(사이드 꾸툼, 2011: 183-190). 자할리야는 이슬람이 태동하기 이전 무함마드가 개혁해야 했던 이슬람 이전의 혼란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로 이슬람을 믿는 신실한 무슬림들이라면 서구 세력과 우상 숭배하는 이들로 뒤덮인 21세기 자할리야 사회를 뒤집고 새로운 이슬람 사회 건설을 위해 나서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며,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사이드 꾸툼은 이러한 자할리야 개념을 (Sayyid Qutb) (Jahiliyya) 20세기 상황에 확대해석하여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반도 상황에 대해서 초창기 무슬림들이 자할리야라 규정한 것을 현대의 무신론적, 세속적 사회에 대입하게 된다. 절대 신의 계시와 의지로 인해 세상이 지배되지 못할 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간 의식, 생활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 모두 불완전한 사회 형태의 모습이며 처단해야 할 것들이다. 사이드 꾸툼은 다음과 같이 자할리야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 기독교인들은 원래의 믿음을 왜곡하고 알라의 특별한 속성을 다른 존재와 결합하여 믿고 있는 예수를 알라의 아들로 인정하는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알라와는 동떨어진 개념을 갖는다. 기독교인들은 알라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복종했으며,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쉬르크(다른 신을 알라와 결합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계시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도해야 할 대상이된다. 세속주의를 표방하면서 알라 외에 다른 것에 복종하기 때문에 알라에게 완전한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이슬람적, 불법적이란 것에는 동일하다(사이드 꾸툼 2011, 183-190).

“이슬람이 다시 인류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한 무슬림 공동체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자할리야 상황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집단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이 정해놓은 것을 무시하고 인간이 멋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형태를 띤다. 신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도전의 결과는 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난다. 공산주의 체제하에 일반인이 겪는 굴욕과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자본과 제국주의의 탐욕으로 발생하는 개인과 국가에 대한 착취는 신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신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들이다.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잘못된 법과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이슬람 세계’라고 불려왔다. 나는 이슬람을 부흥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리더십을 되찾아오기까지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사이드 꾸툼, 2011: 140)

그러므로 이슬람은 단순히 신앙의 혹은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판이다. 이슬람은 사이드 꾸툼이 말하듯이 삶의 방식으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운동을 조직하는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게 되며, 이슬람법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며 동등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믿는다(사이드 꾸툼, 2011: 172-174). 따라서 IS(이슬람국가)가 바라보는 타도해야 할 자할리야는 제국주의로 상징되는 미국과 부정부패로 물든 세속 이라크 정부이며, 꾸란과 하디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샤리아(이슬람법)에 기초하여 현대판 칼리프 법치국가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샤리아는 무슬림들의 역사 중에 8,9세기 법적 체계 즉 ‘피끄흐’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다양한 법 학파들로 나뉘어졌고, 이를 통해 이슬람의 영역으로 다스려 지는데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작용하였다(카렌 암스트롱, 2003: 81).

오늘날 IS(이슬람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샤리아를 고수하기 위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데 지하드를 통한 자할리야 사회를 타도한 이후 그들이 목표를 삼고 있는 칼리프 제도의 확립은 샤리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무함마드의 삶과 언행을 율법적으로 수행하고 따름을 통해 세속적이고 귀족적인 정치형태를 뒤집고 칼리프 시대의 종교를 통한 평등한 움마 사회의 재출현을 꿈꾸기 때문이다. IS(이슬람국가)는 샤리아에서도 주로 ‘후두드’ 법이라고 알려진 “범죄와 처벌 부분”에 집중하여 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아우단·메릴, 2007: 175). 그래서 IS(이슬람국가)는 강력한 사법체계를 통해서 이슬람 법원의 판결을 따라 경찰 순찰대가 공개적으로 광장 한복판에서 참수형 등을 집행하며, 최근에는 이유로 시리아 북부 만비즈라는 도시에서 IS 경찰이 강도

네 명의 손목을 자르고, 이웃을 모욕할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렸으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시리아 거주 남성을 고층 건물에서 떨어뜨린 뒤 돌로 쳐 살해하는 등의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적인 처벌 형태를 실행하여 샤리아에 의해 다스려지는 중세적 칼리프 제도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VI. 21세기 무장조직 단체의 형성과 급진 세력의 부흥

1. 알카에다

알카에다의 시작은 꾸툼의 사상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꾸툼이 주창한 반서방, 반세속주의 투쟁의 정신이 이 무장세력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며 꾸툼이 죽고 난 후 꾸툼의 동생 무함마드 꾸툼에게 배웠던 빈 라덴이 이러한 사상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사이드 꾸툼의 동생 무함마드 꾸툼(Muhammad Qutb)은 사우디로 이주하여 이슬람학 교수가 되었으며 형의 저서들을 편집하여 출간하고 이슬람 전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무함마드 꾸툼의 대표적인 제자이면서 추종가는 자와히리였는데 그는 이집트 출신으로서 지하드를 이끌다가 빈라덴과 함께 알카에다의 공동 창립자가 되었다. 형의 사상을 가르치던 무함마드 꾸툼이 빈 라덴의 스승이 된 것은 사우디의 킹 압둘아지즈 대학교(King Abdul Aziz University)에서였고 빈라덴은 그의 수업을 열심히 듣던 학생이었다. 따라서 자와히리와 빈 라덴이 꾸툼의 영향을 받고 알카에다에 몸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¹⁴⁾

1979년은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성공했으며, 이란과 같은 이슬람 혁명정부 수립을 위해 움직임이 본격화될 때 구소련은 바로 옆의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세력 조직과 훈련을 위해 주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수만명의 훈련된 이슬람 전사들이 전투 현장에서 이슬람식의 강한 군사훈련과 교육들을 받은 것은 이슬람 과격 세력 단체들의 국제화, 테러 세력의 확산에 큰 기여를 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성전을 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국에 들어가 반정부 활동이나 반서방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

14) 빈라덴과 그의 동생은 사이드 꾸툼의 책 ‘Milestones’ and ‘In the shade of the Quran’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건설업계의 대부였던 빈 라덴의 집안은 막대한 부를 쌓은 후 그것을 가지고 아프간의 무자헤딘의 자금과 물자 조달의 임무를 맡았으며, 구소련에 저항하는 무자헤딘들은 사우디의 재정적 지원 아래, CIA와 미국 정보부의 교관 아래 강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알카에다는 1989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소련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내는데 한 동역자들이었다. 20세기 후반에 이슬람 이념에 따라 투쟁 단체에서 싸우는 의용군들로 시작되어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 철수를 반대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중동지역의 이슬람 혁명을 위해 집중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지원국은 알카에다로 변화된 것이다. 알카에다는 원래 무자헤딘이란 세력과는 연관되어있는데 걸프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군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교의 2대 성지 메카와 메디나에 상주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이에 반발하던 무자헤딘들이 반미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알카에다는 후세인의 세속화적 성향에 대해서도 반대했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적대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후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을 지원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안에 알카에다 훈련소를 구축했고, 서방 국가에 대한 공격과 이슬람 혁명을 실시하기 위해 함께 노선을 구축해나갔다.

알카에다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공격했는데 미군이 사우디에 주둔하면서 중동 지역 군사 사령부를 두게 되면서 알카에다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알카에다는 정부의 반대에 의해 이라크에 주 본부를 두지 못하고, 일부는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의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한 지역으로 잠입하게 된다. 알카에다는 소말리아로 이동하던 미군 병력을 예멘에서 공격했으며, 1993년 2월 세계무역센터의 기초부분 건물을 폭파하려했으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고, 1996년에는 클린턴 대통령 암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고, 1998년에는 탄자니아와 케냐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감행해 220명의 인명 피해를 냈으며, 2000년에는 예멘에서 보급품을 선적하던 미국 구축함 콜 호에 자살 공격을 해 병사 17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9.11에 미국에 보복을 자행하였다(윤태영, 2007: 78-80).

2. 탈레반

오사마 빈라덴을 중심으로 현재 알카에다에 연관된 조직은 탈레반이다. 탈레반 조직은 아프간 남부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파슈툰족에 바탕을 둔 부족단체에서 출발하였다. 탈레

브 혹은 탈리브(talib)는 전통식 이슬람학교(마드라사-Madrasa) 등의 대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탈레반(Taliban)은 탈리브의 복수형으로 '학생조직'을 의미한다. 이 조직은 1980년 2월 18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Karachi)의 비로니(Bironi)타운에서 한 무리를 이루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러시아(당시 소련군) 군대를 무찌르자는 목표 아래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이 1979년 옛 소련군의 침공을 계기로 소련의 점령 하에 들어갔을 때 미국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슬람 저항세력으로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은 10년 이상 반 소련 항쟁을 벌이다가 1989년 소련 붕괴 직전 모스크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전불안이 계속됐고 정부의 공백을 틈타 군벌들이 내전을 벌이게 되면서 이 단체는 1990년대부터 무함마드 오마르(Muhammad Omar)를 중심으로 미국과 서방에 대한 표적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1997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란 조직이 아닌 급격한 이슬람 정통주의를 고수한 합법적정부로 자리 잡았으며, 동료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에게 내놓을 수 없었기에 오사마 빈라덴과 그의 조직인 알카에다를 도우면서 숨겨주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력은 자생적인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들과 군인들이 한 공동체로 묶여 탈레반 정권을 돕는 국내 세력과 국외의 파키스탄 소속의 파슈툰부족 등의 합작으로 미국은 주민과 탈레반을 분리하여 처단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미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다. 물론 2001년 12월 미국이 탈레반의 도시 칸다하르를 함락시키면서 아프가니스탄 전투는 종식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파슈툰 부족과 다른 부족 대표들이 정치적 합의를 하는데 성공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새로운 정부와 헌법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정부를 구성했고, 북부동맹을 도왔던 카르자이를 수장으로 점차 회복하게 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진정 회복된 것인가 탈레반은 정말 뿌리 뽑혔는가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탈레반 정권 타도이후에도 알카에다와 연관되었던 '일신교와 지하드,'나 '호라산' 그룹은 더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레반트 지역의 IS(이슬람국가)를 세우기 위해 2011 시리아 내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3. 호라산

호라산(Khorasan)으로 알려져 있는 시리아 내의 또 다른 극단주의 세력들은 아프간 일부를 포함하여 과거 이슬람 칼리프 통치 국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들은 알카에다

와 연계조직을 이루는 자브하트 알누스라 전선(승리전선)과 공조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시리아로 잠입하여 지하디스트들로 활동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알카에다의 주도하에 예멘, 시리아 및 유럽 출신 조직원들로 구성된 호라산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에 대한 테러 공격을 하기 위해 특별히 결성된 조직으로 그 이름은 '해가 뜨는 나라'라는 의미로 현 이란·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말하는데, 이슬람에서 종말 때에 이슬람의 군대가 쫓기할 곳으로도 언급되기도 한다.¹⁵⁾ 이들은 뉴욕 중심부의 타임스퀘어와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해외에 나와 있는 미 공관에 대한 공격을 주목적으로 조직됐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호라산은 그 리더가 알카에다의 이란 지부 책임자였던 삼십대 중반의 무흐신 알파들리 라는 사실 말고는 조직원 수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을 정도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알파들리는 알카에다 창립자 오사마 빈라덴의 측근으로 폭탄전문가이며, 9·11테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고,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국에 보복 테러를 하기 위해 내전으로 시리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호라산을 이끌고 반군 세력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이 호라산 그룹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역의 반군세력 중의 한 무장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

VII. 미국의 대중동 정책과 테러 보복에 대한 평가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동의 대외정책을 수립했다. 1950년부터 1980년대 사이 미국은 소련과 동맹을 맺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던 일부 아랍 국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1991년 미국은 석유 때문에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합병하지 못하게 했으며, 친 아랍정책을 통해 석유자원을 쉽게 획득하고, 미국 회사들을 위해 유가인하나 혜택을 요구했다(루빈, 2006: 296). 그리고 미국은 중동 내 이슬람의 정치적 후원자가 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와하비즘으로 전통적 이슬람을 유지하는 온건한 순니

15) [http://en.wikipedia.org/wiki/Khorasan_\(Islamist_group\)](http://en.wikipedia.org/wiki/Khorasan_(Islamist_group)) 2014. 10. 13. “위키피디아 호라산”

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0364.html 2014. 9. 23. “조선일보 닷컴 노석조 기자의 보도”

과 정권을 도와 급진적 아랍 민족주의에 맞서는 중요한 군사적 요지도 확보하였다.

따라서 투쟁적인 아랍의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합법적으로 아랍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고, 나세르 이후 이집트 뿐 아니라 모로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및 레바논 같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온건파 이슬람 정권들은 서양의 앞잡이일 뿐이라 주장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집트를 회유하는데 성공했고, 세계2위(1위는 이스라엘)의 미국의 보조금 수혜국이 되었으며, 1990년에 시작된 이라크-쿠웨이트 전을 빌미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혔다(Rubin, 2006: 298-299). 따라서 오사마 빈 라덴이 반미로 돌아서고, 9.11 공격을 한 것은 분명 친아랍적이며 친무슬림적이었던 미국의 행위가 배신적이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001년 9.11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하였다. 한국도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씨가 피살되면서 현실화되었고, 이후로도 인질, 납치 사건은 계속되었는데 2006년 3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KBS 용태영 특파원 피랍사건, 2006년 4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동원호 납치사건, 2006년 6월과 2007년 1월 및 5월 3차례의 나이지리아 대우건설 한국인 피랍사건 및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등이 있다(윤태영, 2007: 78).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테러에 대한 보복 전쟁에 대해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테러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과 폭력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이념이나 종교, 민족 간의 대립 및 갈등과 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89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에 처음으로 테러리즘이란 단어가 정의될 때 테러리즘은 “공포의 시스템, 체제”로 국가적 차원의 체제였다. 그러나 지금 테러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정당하지 않은 존재로 매도하고 싶거나 범죄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정치적 활동에 빈번히 사용된다. 미국은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함을 통해서 중동 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중동 지역 내정 간섭은 세계 기구들과 동맹국들에게도 쉽게 제약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세계 정의의 단독 집행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다카시, 2007: 141-2). 그러나 이러한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에 대해 보복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의 ‘군사주의적 테러’도 정당방위식의 테러행위란 점에서 세계 여론의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테러와의 전쟁은 대물림의 가능성이 크며, 비록 IS 공습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테러집단 근절이란 목표는 어차피 불가능할 것이란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의 분쟁과 순니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적 분열 전쟁의 양상은 단 기간에 잡을 수 없으며, 알카에다를 처단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고 해도 새로운 IS(이슬람국가)가 바그다드에 의해 일어나듯이 반서구적, 반미적 성향의 이슬람 단체들의 정치적 전략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결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1년 미국의 이라크전쟁에서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서 자국 석유회사의 사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개입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4가지 자유 외에 실질적으로 “빼앗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자유”를 더 우선시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노암 촘스키는 아프가니스탄이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보복전쟁을 발발했던 것을 비유하여 “물건을 훔친 도둑이 이웃에 숨어있다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 그 도둑을 잡기 위해 당신은 이웃사람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살해할 권리가 있는가?” 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Chomsky, 2002: 157).

미국은 오래전부터 핵 환산 금지조약을 타국에 강요하지만 자신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1년 12월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협정에서 탈퇴를 하여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를 개발하여 먼 거리에서도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미국이 다수의 약소국에는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강제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하는 무법자 같은 불량국가 역할을 언제까지 자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입장에서 아주 중대한 질문이다. 즉 이슬람의 지하드 세력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 또한 무시하지 못 할 불법권력 행세이다. 미국이 내건 세계평화에 대해 혹자는 조소를 가하면서 “좋은 전쟁은 없지만 나쁜 평화는 있다. 타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최악의 비즈니스이다.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장악하고, 나아가 미국의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해방이라고 한다”고 비판하였다(권삼윤, 2003: 75). 그렇다면 미국이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불의한 개입과 억압을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 한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IS(이슬람국가)가 일으킨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언제까지 정당한 전쟁이란 이유로 함께 동참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이 시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VIII. 폭력 국가에 대한 비판과 평화에 대한 입장

국가란 하나의 절대 권위이다. 그러나 온전한 조직이 아니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눈에는 세상 군주가 이 땅의 주인으로 보일지라도 국가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유주 이신 주님 앞에서 물러나야 할 일시적인 주인일 뿐이란 사실이다. 그런 이유에서 모든 사회적, 정치적, 국가의 권위 등은 잠시일 뿐이다. 또한 국가는 종이 될 수도 있으며, 법은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 역시 “은혜와 복음 진리에 의해 지배될 때”만 그럴 뿐 이런 것들은 거짓인 것이다(Ellul, 1998: 290-291). 국가는 타락할 수 있으며 상대적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지배적인 국가와 그 국가를 지탱해 주는 세계관이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연유에서 기독교인들은 각 세계관이 가진 상대적 진리성과 타락으로 인한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여,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인간이나 세계관, 이상사회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회 내의 이해관계와 입장, 세계관에 대한 철저한 모색을 통해 역사 가운데 보이는 각종의 국가 권력의 양상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사회의 복잡한 특성과 타락으로 인한 왜곡을 감안해서 역사형성에서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과 책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흥기, 2003: 80).

국제적 사건이나 분쟁은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3년 3월 20일에 발생한 국제적 분쟁인 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해 중동 국가의 지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이인섭 외, 2004: 171).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미동맹이란 관계 때문에 이라크를 파병했을 시점을 성찰해보면, 노무현 정부의 파병 방침의 제일 이유는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한반도 평화 확보였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부담감은 같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파병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서보혁, 2014: 117).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요인은 동맹관계가 직접적 요인으로 평화가 인류 공통의 염원인 것은 분명했을지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어떻게 추가파병을 노잣돈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길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것인가”하는 것이 당시 이라크 파병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서보혁

2014, 198).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중동에 또 한 차례 IS(이슬람국가)를 상대로 무력 침입하는 것을 돕고, 보복테러를 가하는 것은 악에 대한 처단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라크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요청이나 승인절차 없이 이라크인들의 생명을 빼앗간 전쟁에 한국은 평화유지군이란 목적으로 명분 없는 파병을 했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게 되었고 한반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물론 이라크 민중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중동 평화를 해치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반 평화적인 처사였다(서보혁, 2014: 119-120). 이라크 파병이 처음이 아니다. 그전에도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1964-1973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얻어 낸 것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용병으로 전쟁에 끼어들어 베트남의 수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 한국은 다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핏값이 오늘 우리의 풍요를 이루는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구교형, 2014: 56)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기독교인들은 IS(이슬람국가)를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대답은 스탠리 하우워스가 주장한 ‘교회됨’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된 기독교윤리의 추구는 교회가 사회적 정책이나 전략의 제시를 하는데 있지 않고, 교회됨의 모습 즉 윤리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데 있다(문시영, 2012: 89). 즉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지하는 군사주의적 태도에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보다는, 교회라는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움마(ummah)라는 이슬람 공동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덕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S(이슬람국가)나 어떤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보여줄 수 없는 이 시대가 상실한 평화, 사랑, 공존, 화해와 같은 중요한 가치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하는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듯이 급진적 IS(이슬람국가)에 대항하여 칼이 아니라 쟁기를 잡는 어려운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신교 사상과 지하드 사상으로 무장된 견고한 적군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성전론식, 테러보복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교회

는 ‘사랑과 화평을 위한 중재자’로 서있으면서 중동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격려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절대로 한국 교회는 peacemaker 즉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들로 서있어야 한다. 그것은 핍박 가운데 있는 이라크 교회들을 향하여 “무기를 내려놓으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란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내러티브의 공동체”(Hauerwas, 2010:141-143)이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경전의 백성들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지금 난민으로 피난가게 된 이라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박해와 탄압 속에서 정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내러티브를 삶으로 살아내야만 진정한 평화의 복음은 무슬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예수께서 평화에 대해 설교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신 것과 같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훈련을 받는다(문시영, 2013: 17-18). 고난이란 훈련을 통해 성숙되면서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로마시대의 극악한 박해 가운데에도 초대 교회들은 이겨내었고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이라크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였다. 7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 제국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디미(이등 시민)로서 차별과 고통을 받으며 지즈야(인두세)와 토지세를 내면서 신분 상승과 거주지역, 예배형식과 공적 모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았지만, 2000년이 넘게 은혜 가운데 아시아 교회, 네스토리우스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을 유지하며 살아남지 않았던가? 세계 교회와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과 보복이 아닌 ‘비폭력과 평화’에 대해 한국 교회가 선포할 수 있다면, 이러한 특별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폭력과 전쟁으로 어두운 이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사셨던 예수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 12:2)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남의 결점을 더 크게 잡아 악의 세력으로 몰아 마땅히 처단하려고 하는 지하드 곧 십자군들의 성전론적 사고 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고린도후

서 5장 17-1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화해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던 예수의 십자가 화해 사건(Friesen, 2012:126-127)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라고 부름 받았다. 진정한 평화의 소식은 무력과 보복을 통해 찾아오지 않고 맨 손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간이들에 의해서 들려올 수 있다.

십자군 전쟁은 200여년에 걸쳐서 열 차례나 반복되면서 역사적으로 동·서방 교회가 상처받도록 만들었으며, 무슬림들과 기독교도들의 원한이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 그 땅에 진정한 평화는 임하지 못했다. 당시에 아무도 사라센(사막의 아랍들, 동쪽의 유목민들)이라고 불리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지 않았지만 성 프란시스는 그들을 사탄의 자식이나 악의 세력들로 보지 않고, 5차 십자군전쟁 기간 동안 이집트의 술탄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향해 화해를 청하는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1219). 그 후에도 1235년 십자군 전쟁으로 황폐해진 스페인 땅에서 태어났던 레이몬드 룰(Ramon Lull)이란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이슬람 선교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첫 번째는 그들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일신론자들(무슬림들) 앞에서 잘 변증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 세번째는 무슬림들(사라센)을 위해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용감성(Neill, 1979: 139, 166-167)이 있어야만 그 땅에 선교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 시대는 십자군 전쟁에 나갈 전쟁 용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군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짊어지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평화와 화해를 전달할 발걸음의 세대가 간절하다.

IX. 나가는 말: 평화 추구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이슬람의 과격단체들은 지하드를 통해 다시금 공동체의 정체성과 옛 칼리프 시대 제국의 영광을 기억하며 21세기 압바시드의 부흥을 다시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용서받음’에 대한 기억이다. 먼저 용서받은 자들로서 예배와 삶 가운데 진정 빛난 자들로서, 용서하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폭력을 내려놓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대체된

다.”(Piper, 2013: 115) 교회는 왜 달라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죽이고 멸망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이 유일한 ‘알라’를 향하는 최선의 길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자신임을 성경에서 보이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요 14:6)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의 유대교를 따르던 일신론(알 타우히드)을 받드는 자들에게도 신성 모독죄였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정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유일신 교리를 내세우는 자들은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유일신론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을 사탄으로 정죄하고, 살해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에 대해 성경의 기자들은 그가 유일신론을 깨뜨려 버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증명하셨다(최영실, 2004: 275-276).

지금도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은 타종교인들과 그들의 신은 마땅히 처부쉬야 할 사탄으로 규정되며, 철저하게 서구와 미국에 속한 다른 편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자신의 뜻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같은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와 율법을 따라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는 그 자신이 율법에 의해 정죄함을 받아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했지만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실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 교회들은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주의 시대 풍조와 지하드식 사고방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최첨단 무기 확보와 개발 경쟁에 몰두하면서 자국의 안전과 미래만을 보장하려고 하는 국가들이나 단체들이 있다면 지지해서는 안 된다. 군사주의를 통해 우세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도모하려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지지해야 한다(신원하, 2002: 205).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이나 위대한 사상들도 무기를 통한 살상이나 지하드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가 평화를 위해 발걸음을 하는 것은 무기를

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선택이다. 예수님의 정의 원칙은 단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정의로울 수 있도록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다(Wink, 2003: 57-61).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악한 힘들이 겨냥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따로 세우신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랑을 계시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이다(Ellul, 1998: 287). 그러나 진리는 거짓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선포하는 십자가 사건은 해방과 승리,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십자가”(문용식, 2007: 140-1)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공일주 (2006). 『이라크의 역사: 순니파, 시아파, 쿠르드족의 각축』. 서울:살림.
- 구교형 (2014). 『뜻으로 본 통일 한국』.서울: IVP.
- 구니에다 마사키 (2012). 이용빈 역. 『시리아:아사드 정권의 40년사』. 서울:한울아카데미.
- 권삼운 (2003). 『슬픈 바그다드』. 서울: 꿈엔들.
- 김정위 (2001). 『이슬람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노암 촘스키 홍건영 역. (2002). 『테러리즘의 문화』.
- 듀에인 프리즌 (2012). 박종금 역. 『정의와 비폭력으로 여는 평화』. 서울: 대장간.
- 마크 A. 가브리엘 (2009). 『이슬람과 테러리즘 그 뿌리를 찾아서』. 서울: 글마당.
- 배리 루빈 (2007). 유달승 역. 『중동의 비극』. 서울: 한울 출판사.
- 사카이 다카시 (2007). 김은주 역. 『폭력의 철학: 지배와 저항의 논리』. 서울: 산논.
- 사이드 꾸툼 (2011). 『진리를 향한 이정표: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의 실천적 지침서』. 서울: 평사리.
- 손주영 (2005). 『이슬람-교리, 사상, 역사』. 서울: 일조각.
- 송경근 (2000). 『중동지역연구』. 서울: 조선대학교 출판부.
- 스탠리 하우워스 (2010).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 스티븐 니일 (1979). 홍치모·오만규 역. 『기독교 선교사』. 서울: 성광문화사.
- 아이라 라피두스 (2008). 신연성 역. 『이슬람의 세계사 2』. 서울: 이산 출판사.
- 이상구 (편저). (2003). 『통합 국제법 이론편』. 서울 : BOOKEXAM.
- 이정배 (2007). 『토착화와 세계화: 한국적 신학의 두 과제』. 서울: 한들출판사.
- 이희수 (2011).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9. 11테러 10년과 달라진 이슬람 세계』. 서울: 청아출판사.
- 장병옥 (2008). 『이슬람 원리주의와 중동정치: 중동연구소 HK 사업단 연구총서』. 서울: 한국 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 자크 엘룰, 자크엘룰번역위원회 역. (1998). 『뒤틀려진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 존 파이퍼(2013). 윤종석 역. 『차별없는 복음』. 서울: 두란노.
- 지아우딘 사르다르· 메릴 윈 데이비스 (2007). 유나영 역. 『이슬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 서울: 이후.
-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2009). 『다름의 평화 차이의 공존』. 서울: 동연.
- 최영실(2004). 『성서와 평화』. 서울: 민들레 책방.
- 카렌 암스트롱 (2003). 장병옥 역. 『이슬람』. 서울: 을유문화사.
- 홍미정·서정환 (2011). 『울지마, 팔레스타인』. 서울: 시대의 창.
- 문시영 (2012). “하우워스의 ‘교회됨’의 성찰을 통해 본 기독교적 덕 윤리의 意義.” 『대학과 선교』. 23. 81-108.
- 문용식 (2007).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신앙과 학문』. 12(3). 125-151.
- 서보혁 (2014). “현실주의 평화운동의 실험: 한국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재평가.”

- 『시민사회와 NGO』. 12(1). 105-132.
- 신성호 (2006). “21세기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테러리즘: 척도없는 네트워크 테러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46(3). 33.
- 신원하 (2002). “전쟁, 평화 그리고 기독교 윤리.” 『교회와 사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신학위원회 편』. 서울: 성광문화사.
- 윤태영 (2007). “한국의 국외 대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정책: 김선일 피살사건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77-103.
- 이인섭 외 4명 (2006) “이라크 파병이 ‘한국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중동 지역 5개국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연구 제 8권』. 8(2). 169-199.
- 이표규 (2014). “미국의 2003대 이라크 전쟁 목표변화와 미래 한반도 전쟁: 국제적 개입이론 측면의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71. 67-88.
- 이흥기 (2003). “기독교 역사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신앙과 학문』. 8(1). 서울: 산문출판사.
- 장병욱 (2010). “현실주의 평화운동의 실험: 한국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재평가.” 『중동연구』. 28(1). 153-185.
- 정상률 (2004).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중동정치의 이해 1: 레발트지역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서울: 한울 아카데미. 51-112.
- 최성근, 홍준표 (2014). “이라크 공습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유가충격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이슈리포트』. 2014(32). 1-9.
- 최재훈 (2007). “현대 이슬람 원리주의의 정치세력화와 지하드론-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 급진주의 조직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연구』. 9(2). 157-187.
- 최재훈 (2010). “이슬람 급진주의와 지하드의 글로벌화.” 『한국 이슬람학회 논총』. 20(1). 145-167.
- 현한나 (2013).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현대 이슬람 여성들-이슬람 젠더 비평에 관한 참여.” 『복음과 선교』. 21(1). 151-194.
- 황병하 (2007). “이슬람 지하드의 의미와 그 현대적 적용.” 『한국중동학회』. 27(2). 1-35.
- Ahmed, Sam Said. (2014). “A study of the Yazidis: an introduction.” Ilib Review, 30 no 3 Fall 1973, 37-48.
- Bulac, Ali. (2004). “jihad”, *Terror and Suicide Attack: An Islamic perspective*. Ankara: The Light.
- Hoffman, Bruce. (2006). *Inside Terrorism*.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sch, David W. (2012). *Syria: the fall of the house of Assad* Yale.
- Loretta Napoleoni (2015). 노만수·정태영 역. 『이슬람 불사조: 이슬람국가 IS의 정체와 중동의 재탄생』 서울: 글항아리.
- River, Charles. (2014).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The history of Isis/Isil*.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Sekulow, Jay. (2014). *Rise of ISIS: A Threat We Can't Ignore*. TN: Howard Books

http://en.wikipedia.org/wiki/Jama'at_al-Tawhid_wal-Jihad (검색일 2014. 9. 20)
“ISIS관련 위키피디아 내용”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4/09/16/world/middleeast/how-isis-works.html?_r=1 (검색일 2014. 10. 7) “뉴욕타임즈 ISIS 관련 내용”

[http://en.wikipedia.org/wiki/Khorasan_\(Islamist_group\)](http://en.wikipedia.org/wiki/Khorasan_(Islamist_group)) (검색일 2014. 10. 13) “위키피디아 호라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3/2014092300364.html (검색일 2014. 9. 23) “조선일보 닷컴 노석조 기자의 보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9667
(검색일 2014. 9.3.) “미국인 기자 참수에 대한 기사-오마이뉴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963 (검색일 2014. 10. 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808000142> (검색일 2014. 10. 6) “이라크 IS공세, 대규모 난민 발생-부산일보”

<http://www.church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 (검색일 2014. 10. 9)
“이라크 교회의 역사와 현실-교쟁뉴스”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10/story_n_6649472.html (검색일, 2015. 2.19)
“연합뉴스-인터뷰 테러리즘 전문가 IS와 전쟁에 최소 2년 걸릴 것”

ABSTRACT

Islamic State, Jihad, and Good News of Peace

Han-Na Hyun (Kosin University)

Jama'at al-Tawhid wal-Jihad (Group of Monotheism and Jihad), now known as ISIL or Islamic State, is a decentralized network and was led by the Jordanian Abu Musab al-Zarqawi. IS, a type of government, aims to reestablish the caliphate state governed by a caliph and ruled under Islamic religious law (sharia) in 21st century. IS started to assassinate collaborators with the occupation regime, and to remove the Shia, Christians, and other religious population. Amidst increasing human rights abuse by IS militants in August and September, Christians with other minority religious groups fled to other countries and the refugees became more challenging to churches in the world. Christians, however, are called to proclaim peace among these unrecognized state and active jihadist group remembering "King of peace, Jesus Christ" who will mediate between nations and will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He wants nations will no longer fight against nations, nor train for war anymore(Isa 2:4). Korean churches also stand as peace-maker well as mediator of the Holy wars between the U.S and IS. We need to be more alert against this militarism and pray for the Christian persecution in Iraqi. Now,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of peace among Iraqi are urgent and necessary.

Key words: Islamic State, Jama'at al-Tawhid wal-Jihad, Jihad, Monotheism, Peace, Church

